

설날 가정 예배

예배의 부름 시편 37:4 인도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장 다같이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2.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 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3.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기도 말은이

사랑의 하나님, 설을 맞이 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설을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기에 힘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시편 37:3-6 말은이

- 3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 4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 5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 6 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인도자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가장 많이 나누는 인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에 대한 내용일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진정한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절)

다윗은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생의 참 주인으로 인정하고 의뢰할 때 비로소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생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각자의 삶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의 중심을 가지고,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더욱 선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성실하게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4절)

다윗은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권면합니다. 올 한해 우리 가정, 친척 모두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셋째, “하나님께 우리의 걸음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5절)

마지막으로 다윗은 5절에서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너의 길을 맡기라고 말합니다. 너의 길은 우리 삶의 모든 계획과 목표 그리고 방법들을 포함한 모든 인생의 걸음을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우리의 인생은 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모두가 올 한해 하나님 안에서 각자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뻐하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2025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 송 559장 다 같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하루

후렴.

주 기도 문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5년도

설날 가정 예배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공동체

대한예수교 장로회 계산제일교회